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권 은 영

경남천광학교 교사

최 성 규*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청각장애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초등부와 중등부 음악교사 각 2명과 청각장애학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있어서 청각장애학교 교사는 음악담당 교사의 전문성 결여,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문제, 음악 교구교재 및 프로그램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은 음악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의 제한을 교육과정의 문제와 교사의 전문성 결여에서 기인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학교 음악교과의 문제점은 교육과정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교사의 전문성 결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청각장애학생의 음악교육의 부재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제어 : 특수교육, 청각장애, 음악교육

1. 서 론

청각장애는 청력손실로 인하여 음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청각장애의 유무와 청력손실 정도 등에 대한 진단은 음의 인지 정도와 수준 등에 기초한다. 그리고 청각장애의 진단과 함께 제공되는 중재도 역시 음의 인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이 출현한 이래로 청각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육은 음의 인지를 위한 수월성에 초점을 두었을 것이다.

음의 인지에 대한 시도는 트럼펫 등과 같은 악기를 활용한 청각자극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 등이 있다. 악기를 활용한 청능훈련 방법이 특정 문헌에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력손실이 사회적 또는 교육적 관심을 받았던 시대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프랑스의 Jean-Itard는 6명의 고도 난청학생을 대상

* 교신저자(skchoi@daegu.ac.kr)

으로 악기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어 음에 대한 반응이 점차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1802년 초에 청능훈련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연구자에 의해 악기를 이용한 청각장애학생의 청능훈련은 듣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이규식, 1973).

오늘날 청각장애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교육과 치료교육으로 구분된다. 교과교육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0개의 교과를 10년 동안 청각장애학생에게 지도해야 하며, 그 이후의 2년간은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 등을 고려하여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치료교육은 청각장애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청능훈련과 발성훈련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은 교과교육과 함께 치료교육의 영역으로 이해된다. 즉 음악교육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교과교육으로 이해되며, 또한 청능훈련 또는 발성훈련과 직결되므로 치료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청각장애학교에서 음악을 지도하는 교사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함께 청능훈련을 고려한 치료교육의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1967년 제1차 농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음악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활동에서 “...국어과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청능훈련은 국어과와 음악과를 중심으로...(생략)”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9년 제2차 농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지침에서, 농아학교 초등부 시간 배당 기준표의 교과활동에서 음악교과를 1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주당 1~2시간씩 배당하면서 음악교과와 관련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언어지도 및 이에 부수되는 기초학습 즉 감각훈련, 호흡훈련, 청능훈련, 발음·독화·발어지도 등은 국어과와 음악과를 중심으로...(생략)” 한다고 하였다. 즉 음악과를 국어과의 도구교과의 성격과 동일하게 접근하였는데, 이는 음악과의 특성상 국어과 못지않게 주요한 도구교과의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이며, 또한 청각재활이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은 교과교육과 치료교육의 특성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으므로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먼저 교과교육에 있어서 제7차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음악과 교사의 전문성은 ① 학습목표 의식과 과제의식의 투철, ② 학습자를 이해하려는 교사의 모습, ③ 교사는 ‘교육 내용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학습자 개개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교육부, 2003). 그리고 치료교육으로서의 음악과 교사는 청각장애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청각학, 청각재활, 언어치료방법 등과 같은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전문성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최성규, 1996). 그러나 음악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과교육과 치료교육의 전문성은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① 학습목표 의식과 과제의식의 투철함은 음악교과에 대한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이 청각장애아동의 청각재활을 선도하는 주요 교과라는 인식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② 학습자를 이해하려는 교사의 모습은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언어·심리적 특성을 알고 교육하려는 교사의 자세일 것이며, 그리고 ③ 교사는 ‘교육 내용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학습자 개개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수업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학습의 효과는 개별화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분석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이 교과교육 또는 치료교육의 차원에서 수월성이 보장된다는 보고는 제한적이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김은정(1987)은 청각장애아동의 대부분은 음악을 좋아하고 있는데, 음악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즐거운 일이며, 음악은 일상생활과 감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도 음악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성 결여가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김미은(1988)은 고도 청각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음악적 교재로 청능훈련을 시켰을 때 음의 인지 효과가 긍정적이며, 음악은 잔존청력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음악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셋째, 김지영(2000)은 특수학교의 음악교육 실태 및 문제점 연구에서 청각장애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교 중에서 음악수업 활동이 가장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과는 주요교과로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의 운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음악교과는 청각적 비중이 매우 높게 차지하므로 청각장애아동에게 적합한 교과가 아님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설문지가 아니라서 제시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넷째, 김순연(2005)은 청각장애학교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음악교과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지도 내용의 구체화와 함께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 실태는 학교의 소재지, 초·중등부별 소속, 그리고 교직원경력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음악교과는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도구교과 또는 치료교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각장애아동은 음악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청각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청각장애학교 음악담당 교사의 전문성 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에서는 음악교사의 전문성 결여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에 의존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그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청각장애학교 교사와 청각장애학생을 대상

으로 질적 연구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각장애학교 2 개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음악교사(초·중등교사)와 개별 심층면담을 했으며, 청각장애학교 중·고등부 학생 중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 10명을 정보 제공자로 참여시켰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교사의 실태는 표 II. 1과 같다.

<표 II.1> 연구에 참여한 음악교사 실태

교사	성별	나이	전공	근무 년수 (일반 특수)	음악을 지원하게 된 동기
A학교 초등음악	여	39	초등 특수	특수 : 15년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B학교 초등음악	여	62	일반 초등	일반 : 30년 특수 : 7년	평소 청각장애인의 음악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A학교 중등음악	여	35	중등 특수	특수 : 10년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없어서
B학교 중등음악	여	33	중등 특수	특수 : 8년	본교에서 음악을 지도할 사람이 본인 뿐이므로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평소 다른 수업에 비해 음악 과목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학생들과의 대화는 본교 음악 선생님의 수화 도움으로 대화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학생의 실태를 음악적 특성 등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표 II.2와 같다.

<표 11.2>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학생의 실태

학 생	성별	청력손실 dB(좌/우)	음악적 특성
김00	여	129/120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정00	여	95/103	흥얼거리는 것을 좋아한다.
김00	여	97.5/97.5	자신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장00	남	87.5/87.8	예·체능 과목은 모두 좋아한다.
원00	여	110/115	혼자 앉아서 두드리기를 좋아한다.
박00	여	91.2/101.3	음악을 잘하고 체육 과목에 흥미와 소질이 있다.
안00	여	110/105	음악적 재능이 우수하며 이해력과 표현력이 뛰어나다.
한00	남	90/78.75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김00	여	88/103	리듬감이 뛰어나다.
한00	여	88.8/100	예술적인 소질이 있다.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1) 연구 절차

청각장애학교 2개교를 직접 방문하여 초·중등부 음악교사 4명과 인터뷰 방식으로 녹음을 하였으며, 학생들은 직접 대화를 나눠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면담 내용에는 음악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청각장애학생들의 음악적 견해 및 흥미도, 조기교육, 음악지도의 문제점과, 교수·학습방법의 문제점, 음악교사의 전문성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음악교사들과 학생들의 음악교과와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자료 분석

인터뷰 형식을 통해 개별 심층 면담 결과를 질적 분석기법에 의해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연구 목적에 따라 해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교사의 면담 결과

1)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사의 전문능력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사로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면담 결과는 표 III. 1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III.1>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사의 전문성

음악교사 (초등)	주요 면담 내용	음악교사 (중등)	주요 면담 내용
A학교 음악교사	교사는 먼저 청각장애학생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음악 교과의 전문지도 및 지식, 지도내용, 방법 면에서 뛰어나야 한다. 기본적인 지도방법은 물론이고 교과에서 다방면으로 뛰어나야 한다.	A학교 음악교사	청각장애학생을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해선 안 된다. 음악 교육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음악적 능력을 고루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
B학교 음악교사	먼저 학생들의 장애를 이해하고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독특한 교육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실전을 쌓아야 한다.	B학교 음악교사	전문성이란 말이 아주 전문가적인 수준이라는 말보다 교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들은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라는 측면은 그들의 장애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음악이라는 학문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의사소통을 하는 측면에서 ‘말’이라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언어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는 측면에서 ‘수화’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대신 모든 학교 음악교사가 그랬듯이 음악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음악교과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실기능력을 갖추어 청각장애학생들의 음악적 가능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음악적 자질과 발전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음악이 청각장애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와 함께 치료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학문만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음악적 소양은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 방법

음악에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대 영역이 있다. 이 중에서 교사가 많이 강조하고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 면담한 결과를 표 III. 2에 요약하였다.

<표 III.2>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사의 음악교육 방법 선호도

음악교사 (초등)	주요 면담 내용	음악교사 (중등)	주요 면담 내용
A학교 음악교사	가창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유로서는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노래를 지도한다는 의미보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동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이다.	A학교 음악교사	가창을 위주로 지도한다. 가창 지도를 하면서 호흡훈련과 함께 리듬치기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낸다. 기악은 지도하고 싶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다.
B학교 음악교사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없고 거의 조금씩 지도한다.	B학교 음악교사	가창지도를 위주로 한다. 단지 노래를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A학교 초등음악교사의 경우는 다 년 간의 교육경험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준을 잘 파악하여 교육적인 측면과 함께 치료적인 측면을 함께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A학교 초등음악교사를 제외한 교사들은 일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음악교과를 지도하는 실정이다. 면담 내용처럼 음악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가 가진 재량만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3) 청각장애학교 음악교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생각

현재 음악교사로서 청각장애학교 음악교과의 필요성에 대해 면담한 결과를 표 III.3에 요약하였다.

<표 III.3> 청각장애학교 음악교과의 필요성

음악교사 (초등)	주요 면담 내용	음악교사 (중등)	주요 면담 내용
A학교 음악교사	음악은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학문으로 인성지도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준다.	A학교 음악교사	듣지 못한다고 즐길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싶다. 음악은 단순히 듣는 학문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B학교 음악교사	다른 어떤 학문보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다.	B학교 음악교사	음악을 통해 호흡훈련, 발성, 신체동작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 표현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음악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강조되어야 하고 필요한 이유는 음악을 느낌으로써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곧 감정 표현은 아이들의 인성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

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학문보다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4) 청각장애학교의 음악실 내 시설 및 환경

음악수업 시 음악실의 시설 및 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한 면담 결과를 표 III. 4에 요약하였다. 음악실이란 공간은 일반학교나 특수학교나 시설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청각장애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생이나 다른 장애 학생들에 비해 더욱 다양한 악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표 III.4> 음악교실 내의 시설 및 환경

음악교사 (초등)	주요 설문 내용	음악교사 (중등)	주요 설문 내용
A학교 음악교사	어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리듬악기와 국악기가 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타악기가 구비 되었으면 한다.	A학교 음악교사	소리의 진동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B학교 음악교사	음악실을 중학부와 같이 쓰고 있어 한번씩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B학교 음악교사	악기 탐색을 위해 다양한 악기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다.

5)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과에 추가 되어야 할 내용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과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표 III.5와 같이 면담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III.5>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과에 추가 되어야 할 내용

음악교사 (초등)	주요 면담 내용	음악교사 (중등)	주요 면담 내용
A학교 음악교사	다양한 리듬치기 활동 프로그램 램이 재구성 되어야 한다.	A학교 음악교사	교과에 필요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음악시간을 늘이는 것이 우선이다.
B학교 음악교사	창작활동 중에서 몸으로 하는 창작활동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B학교 음악교사	음악교과를 좀 더 세분화 시켜 지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수가 늘어나야 한다.

음악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문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과 인성적인 면을 올바른 방향으로 크게 강조할 수 있다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첨가하여 악기 탐색, 소리 탐색을 통하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음악적 소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6) 음악교육과정의 문제점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면담 결과는 표 III. 6과 같다.

<표 III.6>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과정의 문제점

음악교사 (초등)	주요 면담 내용	음악교사 (중등)	주요 면담 내용
A학교 음악교사	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이다.	A학교 음악교사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일반학생에게 맞는 음악교육방법이 있을 것이고 장애학생들과 각각 가지고 있는 장애에 따라 적합한 교육과정이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을 일반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다.
B학교 음악교사	장애 학생들에 맞는 음악교육 과정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문제이며 학생들의 정서와 장애상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이다.	B학교 음악교사	예·체능 교육이 일반 학생에 비해 많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음악수업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상태를 무시한 일반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이는 음악교육과정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강조하는 부분이며, 예·체능 시간이 줄어들어 따라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강조하고 있었다. 장애학생들 중에서도 장애 특성에 맞게 음악교육이 지도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학생들의 장애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입식 교육과 일반 학생들에게 맞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조되어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절실한 예·체능 교육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 따라서 맛보기 위주의 교육이나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창의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음악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2.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학생의 면담 결과

1) 음악에 대한 견해

평소 음악이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 8에 요약정리 하였다.

<표 III.8> 설문조사 참가 학생의 음악에 대한 견해

학 생	음악에 대한 견해
김OO(여)	음악은 항상 기분 좋은 것이다.
정OO(여)	흥얼거리는 리듬이 재미있다.
김OO(여)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내가 시인이 되는 것 같다.
장OO(남)	못 듣는다고 음악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원OO(여)	몸을 흔들고 두드리는 것도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박OO(여)	우리도 음악을 좋아한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즐긴다.
안OO(여)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데 기회가 되면 작곡도 하고 싶다.
한OO(남)	소리치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 모두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김OO(여)	혼자 땀뽀기를 하며 기분을 조절한다. 그것이 음악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OO(여)	TV광고를 좋아한다. 보고 있으면 신난다.

평소 음악이나 예·체능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서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음악을 듣는 것을 예상 외로 즐기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공부를 할 때나 생활을 할 때 음악을 틀어 놓는 학생들도 많았다. 음악이라는 이론적인 학문에 치우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많이 즐기고 있었다.

2) 음악수업의 흥미도

다양한 음악활동 중에서 좋아하는 교육내용을 질문한 내용의 답변은 표 III. 9와 같다.

<표 III.9> 설문조사 참가 학생의 음악수업의 흥미도

학 생	음악수업에서 좋아하는 활동
김OO(여)	노래 부르는 것이 즐겁다.
정OO(여)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신난다.
김OO(여)	노래 부르기가 재미있다.
장OO(남)	리듬치기가 재미있다.
원OO(여)	리듬치거나 몸을 흔드는 것을 좋아한다.
박OO(여)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안OO(여)	노래 부르기와 기악활동을 좋아한다.
한OO(남)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김OO(여)	리듬치기와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한OO(여)	리듬치기를 좋아한다.

학생들의 답변을 보면, 수업 시간 중 음악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이라는 음악의 4가지 활동 중에서 거의 가창 활동에 치우쳐 있고 기악과 창작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래 부르기를 즐기지만, 다양한 기악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3) 음악의 영향력 조사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음악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설문조사참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음악의 영향력 조사

학 생	음악의 영향력 조사
김OO(여)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정OO(여)	가끔은 듣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고통을 느낄 때도 있다.
김OO(여)	음악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장OO(남)	화가 날 땐 마구 두드리기를 하면 화가 풀린다.
원OO(여)	기분 따라 춤을 추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박OO(여)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다.
안OO(여)	기분에 따라 슬픈 곡과 경쾌한 곡을 틀어 놓는다.
한OO(남)	소리를 지르는 기분이 음악일까? 생각한다.
김OO(여)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스피커에 귀를 대고 있는 느낌이 좋다.
한OO(여)	음악은 혼자 즐길 때나 함께 즐길 때나 다 좋다.

학생들의 답변이 대체로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준다는 부분이 많았다. 때로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듣지 못하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 음악은 학생들에게 감정표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사회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4) 음악의 과외학습 조사

음악교육을 학교 외의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따로 경험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설문조사 참가 학생들의 음악의 과외학습 실태 조사 결과

학 생	음악의 과외 학습 조사
김OO(여)	교회에서 찬송가로 음악을 많이 접한다.
정OO(여)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 전부이다.
김OO(여)	집에서 혼자 음악을 틀고 있다.
장OO(남)	부모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셔서 집에서 자주 틀어 놓고 있다.
원OO(여)	학교 외에서 따로 음악교육을 배운 적은 없다.
박OO(여)	피아노 학원을 잠시 다닌 것이 있다.
안OO(여)	성당에서 활동하면서 음악을 접한다.
한OO(남)	교회에서 음악을 자주 접한다.
김OO(여)	교회에서 음악을 자주 접하고 드럼을 잠시 배웠다.
한OO(여)	학원에서 피아노 과외를 배운 적이 있다.

대체로 집이나 학원보다는 교회나 성당 같이 종교단체에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학생들의 답변을 좀 더 상세히 나열하자면 어릴 때는 여러 종류의 학원을 권유 받고 다녔지만, 고학년이 될 수록 학원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음악교육을 접할 기회는 드물어지고 집이나 종교 단체에서 음악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5) 악기연주의 관심도

악기를 배운다면 학생들은 어떤 악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표 III.12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III.12> 설문조사 참가 학생들의 악기연주의 관심도 조사 결과

학 생	악기연주의 관심도
김OO(여)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정OO(여)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김OO(여)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고 싶다.
장OO(남)	드럼을 배우고 싶다.
원OO(여)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멋있어 보인다.
박OO(여)	기타를 배우고 싶다.
안OO(여)	피아노, 키보드 같은 악기를 배우고 싶다.
한OO(남)	기타와 드럼을 열심히 배우고 싶다.
김OO(여)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한OO(여)	배울 수 있는 악기는 다 배우고 싶다.

일반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해 보고 싶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의견으로 저학년일 때는 피아노, 멜로디언 같은 건반 악기에 관심을 보이며 배우고 싶었고, 중학부에 들어오면서 기타, 드럼, 키보드 같은 연주 악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미뤄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음악을 듣는 취향에 따라 배우고 싶은 악기의 취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음악 교육적 요구사항

지금까지 질문한 것을 종합하여 학교교육에서 보충되어야 할 음악교육의 요구사항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설문한 결과들을 요약 정리하여 표 III. 13에 나타내었다.

<표 III.13> 설문조사 참가 학생들의 음악 교육적 요구사항 조사 결과

학 생	학교 음악교육의 요구사항 조사
김OO(여)	악기를 한 가지씩 배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OO(여)	수화를 잘 하시는 음악선생님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OO(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적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장OO(남)	특수 음악자료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OO(여)	음악전공을 한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박OO(여)	악기를 배워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안OO(여)	일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외의 것을 많이 배우고 싶다.
한OO(남)	합창단이나 밴드부가 있으면 좋겠다.
김OO(여)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접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고 싶다.
한OO(여)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싶다.

표 III. 13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학교에 악기 비치 양적이나 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그리고 음악실의 환경 또한 일반아동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약기지도에 열성적이지 못한 면도 있을 것이다.

7) 음악전공에 관한 조사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과의 면담이라 학생들이 음악을 전공으로 생각하거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표 III.14에 나타내었다.

<표 III.14> 설문조사 참가 학생들의 진로와 음악에 대한 견해 조사 결과

학 생	음악 전공과 진로에 관한 질문
김OO(여)	음악을 즐기고는 싶지만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정OO(여)	가능한 음악을 많이 배우고 싶지만 진로는 힘들 것 같다.
김OO(여)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한계가 있을 거 같다.
장OO(남)	음악은 즐기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싶다.
원OO(여)	체계적인 음악공부를 해 보고 싶다.
박OO(여)	피아노 연주가 되고 싶다. 하지만 많이 힘들 것 같다.
안OO(여)	현재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진로까지는 힘들 것 같다.
한OO(남)	기회가 되면 전공도 생각해 본다.
김OO(여)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진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한OO(여)	음악 전공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마땅히 가르쳐 주실 분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악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대단했지만, 음악전공이나 진로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현재 학교교육에서도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음악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주먹구구식의 음악교육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 청각장애라는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해 보겠다는 의지를 적게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의 문제점은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질, 청각장애학교의 환경적인 이유 등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악교사 배치의 부족과 교사의 전문성 부족, 다양한 음악방법을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 그리고 학생들의 음악성을 파악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음악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연구 방법, 즉 질적 연구를 통한

문제의 제기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교 중에서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2001년부터 시행된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령의 개정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장애영역과 관계없이 교사가 순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교육과정과 교사자격증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음악교육을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오늘날 제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과거의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은 시간 등의 편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음악교과는 국어교과와 동일시 될 정도로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청각재활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었다. 즉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과는 정규 수업시간에 지도했다. 그리고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창학습보다는 리듬표현에 중점을 두고, 또한 선율보다는 리듬표현이나 정확한 발음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도록 하였다. 기악은 주로 리듬 악기 위주로 하였으며, 청능훈련을 위한 기자재, 즉 음악 증폭기기, 진동기기, 음압의 변화를 알려주는 소음계 및 기타 기자재 및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할 것으로 권하였다. 그러나 1998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청각장애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일반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이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 접근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함께 청각장애학교의 노력이 부가된다. 청각장애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의 현실화는 이미 권순우(2005)의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각장애학교 교장과 교감, 경력이 많은 교사와 적은 교사의 이해와 노력, 청각장애학생과 부모의 이해 등이 배려될 때 수 년 또는 십 여 년의 노력의 결실로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과정은 음악교육에 대한 일반화에 치중하여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은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또한 장애영역을 배제한 교사자격증의 발급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교육과정도 과거와는 달리 장애영역을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각장애학교의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 즉 교육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사양성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영향이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은 않는다(최성규, 강민주, 2004). 즉 장애영역을 무시한 교사자격증의 통합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적용은 청각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어떤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요구된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변화의 물결로 이해된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하여 분리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다.

IV. 결론 및 제언

1.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사의 면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

첫째, 청각장애아동을 지도하는 음악교사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음악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은 청각장애학생의 음악교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와 운영 등에서 교육의 수월성이 보장되지 않는 심각한 괴리감으로 나타난다.

둘째,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음악실, 즉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다. 청각장애학교의 음악실은 일반학교의 음악실과 차별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청능훈련 등과 관련된 교육 기자재와 자료 등이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음악교과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현재 청각장애학교에서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음악시간은 중학교 1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 2, 3학년은 주당 1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음악적 활동을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 적용되는 선택교과제에서 음악이 제외될 경우에는 음악을 즐기고 싶은 청각장애학생들의 기본적 욕구마저도 배제될 수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음악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각장애학교 음악교과의 효율적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재구조화, 음악교과 지도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청능훈련 등을 위한 음악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음악교과에 대한 선택교과제에 대한 제고 등이 선결 과제로 제시된다.

2. 청각장애학교 학생의 면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

청각장애학생들은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음악활동으로 표현·표출하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들은 자신들의 창의적 재능과 능력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학교와 전문교사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청각장애학생은 음악 수업시간의 부족과 형식화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주먹구구식의 음악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재·교구의 부족은 청각장애학생의 음악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청각장애학생은 한 가지 이상의 합창이나 합주 등과 같은 활동을 원하고 있으나, 지도 교사 또는 지원의 부재 등이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부재와 문제점 등은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청각장애 학생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학교 음악교과 등을 포함한 교육 과정의 정상화는 청각장애학교 교육의 정상화로 직결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효율적인 음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교사 배치, 현직교사의 재교육 기회제공,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노력도 또한 요구된다. 청각장애학생의 음악교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학생의 음악교육은 밝은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우(2005). 청각장애 학교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교육 인적 자원부(2003).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자료**.
- 교육부(1997).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12.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p. 168~169.
- 권은영(1998). 단순 리듬 교육이 자폐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미은(1989). 청각장애 유아의 음악을 통한 청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순연(2005).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1997). 청각장애아 음악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지영(2000). 특수학교 음악수업 실태 및 문제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서우석(1997). **음악 현상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아동 복지 연구회(2002). **아동 복지 및 정책**. 서울:학문사.
- 성경희(1989). **음악과 교육**. 서울 : 갑을출판사.
- 오순근(1983).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의 실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규식(1973). **청각교육**. 배영출판사.
- 이규식, 김두희, 백준기(1972). **한국 아동들에 대한 난청실태 조사(제3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교 잡지 13. p. 357.
- 이규식, 김영순(1975). **고도난청아에 대한 보청기 적응(III)**. 한사대 논문집, 5, p. 205-244.
- 이규식, 김창수(1977). **난청학생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특수교육학회지.
- 이명은(1995). **색을 활용한 정신지체아의 음 계명 지도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화(1984). **유아를 위한 유아에 의한 음률교육**. '유아를 위한 음악과 율동'. 유아교육 심포지움 V. (한국어린이교육협회). p. 8-9.
- 장혜성(1983). **시각 청각, 촉각의 사용이 고도난청 및 농아의 언어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 정세문(1987). **음악과 학습지도**. 서울:창지사.
- 최병철(1999). **음악치료학**. 서울:학지사.
- 최성규(1996).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전문능력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특수교육연구**, 3, 181-207.
- 최성규(1997). **청각장애아의 심리**.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 최성규, 강민주(2004). 청각장애학교 언어교과서 활용실태와 문제점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6(2), 309-332.
- 한국 코다이 음악 연구소(1999). **한국 코다이 협회 총서Ⅷ. 전래동요 곡집**.
- Donald E. M. (1997). 신현순(역). **특수교육과 음악** 대구: 교육과학사.
- Radothy, R. E., & Boil, D. (2002). 최병철, 방금주(공역). **음악 심리학**. 서울:학지사.
- Suzanne B. Hanser(2003). **헨서 박사의 음악치료 지도서**. 김종인(역).
- 熱海則夫(1980). **身心障害兒教育**. 東京 : 現代學校教育全集. P.103
- Edwards, E. M(1975). *Music for the Exceptional Child*, MENC. P.48-49.
- McDonald, D. T. (1979). *Music in our lives: The early year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 26.
- Moore, D. S. (1978). *Educating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 Boston ; Houghton Mifflin. P.171.
- Swanson, B. R. (1965). *Music in the education of children*. Belmont CA : Wadsworth Pub. P.221.

K C I

A Study on the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in Musical Education of the Schools for the Deaf

Kwon, Eun Young

Gyeongnam Khunkwang School for the Deaf

Choi, Sung Kyu

Daegu University

<Abstract>

Special education for deaf should have the role of not only optimized education for individuals but also treatment and impr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what problems of music education for the deaf are as well whether music curriculum is optimized under consideration of body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af in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Four teachers who are working for two schools for the deaf and ten deaf students in the secondary level we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 (a) the lack of specialty: Teachers non-specialized in music are teaching while teachers specialized in music are teaching in the case of normal education school. They are not good at the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teaching instruments and materials as well as teaching methods and then cause the deterioration of specialty in music class; (b) improper classroom as educational surrounding: Although classroom should have special instruments and materials for special teaching, most of all music classrooms in special education school have little it by reason that apportioned education finance was not enough; and (c) insufficient allocation of time for music class: Shared time for music class, which is two hours for a first grader and one hour for second and third grader in middle school for the deaf, is not only allow to take class constructed with various music actions but repress student's desire to enjoy music, who have to choose a specified subject since a second grader in high school.

158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제7권 1호)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hearing impaired, music education

K C I